강진, 왕우렁이 피해 예방 총력…약제 적기 사용 당부

강진군이 본격적인 모내기 이후 기온 상승과 함께 왕우렁이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어린 모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 관리와 사전 방제에 적극 나설 것을 당부했다.

왕우렁이는 친환경 논잡초 제거에 효과가 높아 농가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최근 겨울철 이상고온 등으로 월동 개체수가 증가하면서 어린 모를 갉아먹는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모내기 직후부터 벼 활착 초기까지가 피해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로 꼽힌다.

이에 강진군은 앞서 추진한 '왕우렁이 피해 예방약제 지원사업'을 통해 왕우렁이 피해 예방 유기농업자재 1만2,478포를 농가의 사전 대응에 지원했으며, 약제 적기 사용과 논·용수로 관리 등 후속 예방 활동도 함께 강조하고 있다. 군은 지원된 왕우렁이 예방약제가 유기농업자재인 만큼 사용 시기와 방법을 지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예방약제는 왕우렁이 활동이 활발한 모내기 직후부터 벼 활착 초기 사이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논에 물이 너무 깊지 않은 상태에서 왕우렁이 이동 경로와 피해 강진 지역 중심으로 고르게 살포해야 방제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약제 사용 후 일정 기간 물 관리를 유지하고 논 상태를 수시로 확인해 초기 피해 발생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군은 농업인들에게 ▲모내기 직후 논 상태 수시 점검 ▲용·배수로 주변 왕우렁이 유입 차단 ▲월동 개체 및 알 제거 ▲피해 발생 초기 즉시 방제 등을 집중 안내하고 있다. 또한 피해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예찰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왕우렁이는 번식력과 섭식력이 강해 관리가 미흡하면 어린 모 피해와 생태계 교란 우려가 있어 적기 예방과 철저한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군은 설명했다. /전운재 기자

왕우렁이 피해 예방 점검을 실시한다. /강진군 기획홍보실 제공

무안, '우리 생활 속 지방세 이야기' 안내책자 발간

전남 무안군은 군민들이 지방세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26 우리 생활 속 지방세 이야기' 안내책자를 발간해 읍·면사무소와 관내 마을회관 등에 배부했다.

안내책자에는 2026년 지방세 관계법 주요 개정 내용과 지방세 세목별 개요, 알아두면 유익한 감면제도, 지방세 납부 방법 등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방세 정보가 담겼다.

김지윤 세무과장은 "앞으로도 군민들이 지방세 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춘 안내책자를 매년 제작해 홍보하겠다"며 "군민들이 불편함 없이 세무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군은 책자를 통해 군민들의 지방세 이해도를 높이고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세무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용운 기자

목포, 2026년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성황리 개최

2026 목포시 청소년의달 기념행사 사진 /목포 시청 제공

목포시는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지난 23일 목포시하당청소년문화센터에서 청소년과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목포시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목포시청소년문화센터와 목포시하당청소년문화센터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청소년이 행복한 도시, 바로 목포입니다!'를 주제로 ▲1부 기념식 ▲2부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촉식 ▲3부 청소년 모의투표 출정식 등으로 다채롭게 진행됐다.

1부 기념식에서는 청소년 댄스팀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청소년 헌장 낭독과 청소년의 달 유공자 표창이 이어졌다. 표창은 지역 청소년의 권리 신장과 참여 활성화에 기여한 목포혜인여자고등학교 김지영 학생 등 청소년 12명과 목포시하당청소년문화센터 장보윤 실장 등 청소년지도자 8명, 유공 시민 3명 등 총 23명에게 수여됐다. /박성태 기자

함평군, 학교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준공식 성료

전남 함평군이 학교농공단지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과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복합문화센터의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함평군은 "이날 학교면 죽정리 학교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에서 입주기업 관계자와 근로자, 기관·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준공식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28일 밝혔다. 준공식은 준공 보고를 시작으로 기념패와 인재양성기금 전달, 기념사, 축사, 테이프 커팅, 시설 견학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학교농공단지협의회는 복합문화센터 준공을 맞아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인재양성기금 500만 원을 기탁하며 지역사회 공헌에도 앞장섰다. 학교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은 노후화된 농공단지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센터는 총사업비 75억 3,100만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439.39㎡ 규모로 조성됐다. 센터에는 ▲식당 ▲커뮤니티실 ▲북카페 ▲체육실 ▲세탁실 등 근로자 편의시설과 함께 기숙사 20실, 최대 36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생활공간이 마련됐다. /이문수 기자

영암군, 무화과'기찬충이망'2년차 현장 정착나선다

영암군농업기술센터가 지난 27일 농업기술센터 무화과시설연구동에서 '무화과 기찬충이망 재배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연회에는 기찬충이망 보급사업 참여농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시연회는 농촌진흥청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인 무화과 기찬충이망 보급사업이 2년 차를 맞아 농가 사용 경험을 공유하고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기찬충이망은 무화과 과실을 총채벌레 등 해충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보호해 상품성 저하를 줄이는 현장 적용형 기술이다. 무화과는 과실이 연약해 해충 피해가 품질과 농가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수확기 안전성과 방제효율을 높이는 기술 보급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이날 시연회에서는 ▲기찬충이망 보급사업 추진현황 안내 ▲재배방법 설명 ▲사용요령 시연 ▲농가별 사례 공유 ▲현장 애로사항 및 개선 의견 수렴 등이 진행됐다. /이문수 기자

신안해양과학고, 심폐소생술 대회 특별상

신안소방서(서장 고상민)는 27일 열린 소방청 주최 '제15회 전국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 전남 대표로 출전한 신안해양과학고등학교 학생팀이 학생부 전국 6위인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신안소방서는 이번 대회를 위해 예방안전과 교육 담당을 교관으로 배치하여, 학생들에게 심폐소생술(CPR)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을 1:1 맞춤형으로 집중 지도했다.

학업과 실습 중에도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에 매진한 학생들은 전국 쟁쟁한 대표팀들이 모인 본선 무대에서 침착하고 완벽한 응급처치 시연을 선보여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안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성과를 계기로 지역 사회에 생명 존중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대국민 응급처치 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박성태 기자